

광주서 백신 접종자 잇따라 확진

AZ·화이자 백신 접종 3명 확인

항체 생기기 전에 감염 추정

백신 맞더라도 마스크 쓰기 필수

광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은 항체가 생기기 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당분간 2차 백신 접종 이후에도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의료기관 종사자 A씨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차 접종 후 한 달 만에 확진된 것으로 아직 2차 접종은 받지 않았다. A씨는 최근 확진자가 나온 광주 호프집 방문자로, 이 호프집 방문자에 대한 전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광주에서 백신 접종자 중 확진자는 현재까지 3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2357번 확진자는 의료기관 근무자로, 지난 15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을 1차 접종한 지 9일만에 감염이 확인된 것이다.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동료 직원도 함께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해당 확진자의 업무 특성상 의료기관 전수 조사보다는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해 검사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3일 확진된 광주시 광산구 모재가노인복지센터 입소자인 광주 2351번 확진자도 백신 1차 접종자로 조사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19일 화이자 백신을 맞고 4일만에 감염 사실이 밝혀졌다.

당국은 이들이 접종 전후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례적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신을 맞기 전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돼 잠복기가 지

난 후 증상이 발현했거나,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 이전 감염원에 노출돼 감염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일반적으로 10~14일 정도 걸리는 만큼 접종 전후로 감염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백신은 1회 접종으로도 좋은 효과를 보이지만 접종 대상자들이 보호받기 위해선 두 번째 접종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종식 전까지는 접종 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에서도 백신접종 후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에선 대형 종합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의료진 22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바 있다. 2차 접종 후로 감염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스티븐 린치 하원의원이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방역 전문가들이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하는 이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검사 대기 수북히 쌓인 검체통 광주·전남 지역에서 체육회와 대학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25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 검체보관 실에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기다리는 검체통이 수북히 쌓여있다.

화이자 백신 2천만명분 추가확보...백신 수급 일단 '파란불'

총 9900만명분...“안심은 일리”

집단면역 적기 도입 여부가 관건

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4000만회분)을 추가로 들여오기로 함에 따라 백신 수급에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화이자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과 달리 '희귀 혈전증' 부작용 논란에서도 비켜서 있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라는 점에서 신뢰도 또한 높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수급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25일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화이자와 1000만명분을 계약하고 올해 2월 3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한 데 이어 전날 3번째 계약을 통해 총 3300만명분(6600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이번 계약으로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총 9900만명분(1억9200만회분)으로 늘어났게 됐다. 전체 인구(5200만명)가 1.9번씩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자,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인원 3600만명(인구의 70%)의 2.75배 해당하는 분량이다.

화이자 추가 계약을 포함해 정부가 확보한 백신 9900만명분은 물량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다. 정부의 계획은 오는 6월까지 1200만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치고 오는 9월까지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에 대해 2차 접종까지 마쳐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모더나-얀센 백신이 지금 계획대로 2분기까지 2000만회분이 들어오고 3분기에 8000만회분, 4분기에 9000만회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면 집단면역 조기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3~4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백신이 제때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백신 수급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바이러스 벡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이 희귀 혈전증 부작용 논란에 휩싸이면서 mRNA 기반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향후 수급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연남뉴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둘째아 출산 산모도 포함

전남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대상에 둘째 아이 출산 산모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셋째 아이 출산 산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됐는데 감면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곡성 출신 정옥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을 현행 셋째 아이에서 둘째 아이 이상 출

산 산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행 조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대상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배우자,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산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유족 및 가족, 귀농·귀촌인 등이다. 현재 전남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4곳 운영 중이다. 지난 2015년 해남종합병원에 1호가 들어선 이후 강진, 완도, 나주에 설치됐다. 올 10월 순천에 5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형 산후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본격 가동

전문 간호사 방문 산모·신생아 관리

광주형 산후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광주대학교에서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출범식을 했다. 간호사 등 전문 인력 48명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의 유방울혈, 수유 마사지, 모유 수유를 돕고 신생아 수면을 관리하는 등 1대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는 차별화됐다고 시는 설명

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제한 없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산한 지 90일 이내인 산모다.

이용 시간은 하루 4시간씩 총 5일이다. 요금은 시간당 2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5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는 산모는 출산 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이나 광주여성가족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3~4월 이들 인력을 대상으로 이론, 실습 등 전문 양성 교육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보험료 80% 지원...벼 재해보험 가입 하세요

6월 25일까지 농·축협서 판매

전남도는 26일부터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이 판매에 들어감에 따라 농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해 전남지역 벼 보험 가입률은 전국 1위인 74%로, 6만1000농가가 11만4000ha를 가입해 총 보험료 486억원을 납부했다. 이 가운데 자부담액은 자부담 8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태풍, 호우 등 피해로 3만 농가가 보험금 699억원을 수령해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됐다.

올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오는 6월 25일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한다.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신분증,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 가입 자격 및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 농·축협으로 찾아가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도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제도대책을 추진, 가입률을 80%(가입면적 12만3000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비 70억원 등 사업비 700억원을 들여 가입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1ha당 벼 보험료는 평균 42만8000원으로 농가는 이 중 20%인 8만6000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유키 인증 농가는 보험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사와 협력해 판매 기

간 매주 가입률 추이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박철승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해마다 태풍과 각종 병충해 등으로 벼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농가에선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7개 시·군 농업인, 농민회장 등 80여명과 면담하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타 시·도 등과 협력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연구 용역을 실시해 정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주)오천투자대부
2020-금감원-2027 (대부업, 대부중개업)
여신금융감독서국 대부업총괄팀 02-3145-8265

고정수입·안정투자

돈·늘분
돈·쓸분

문의.010-3605-5000

대출금리 최고 연24%, 이내(연체금리 연24%, 이내) 부대비용 없음
취급수수료 없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수기동)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부지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 매매 - 협의

월세660만원 고정 수입

- ▶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 ▶ 6층중 4층 전체, 240평
- ▶ 메리츠증권회사 임대 중
- ▶ 3면이 바다 전경, 뷰 좋음
- ▶ 용자 6억8000만원 있음
- ▶ 회사 사정상 급매, 15억 → 13억

중개환영. 010-3605-5000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자,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답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준,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서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답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